

## 광주, 백신 1단계 접종률 50% 넘었다...이상 증세 5명 ‘호전’

요양병원 71.8%...요양시설은 26.8% ‘속도 조절’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 가동...의료진 접종 개시

감염병전담병원 등은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광주 지역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률이 50%를 넘어서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 반응을 호소한 5명은 모두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7.8%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까지 1분기 대상자 1만1997명 중 6935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요양병원의 경우 총 65개소 접종대상자 8870명 중 6370명이 접종을 마쳤다. 접종률은 71.8%다. 백신을 맞은 접종자 중 발열 등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3명이었으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시설은 총 83개소 2087명 중 559명(26.8%)에 대해 1차 접종이 완료, 이 중 2명이 이상 반응을 보였으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 다만 접종 대상자 방문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접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다음주

중 접종을 마칠 전망이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종사자 1040명 중 현재 6명이 접종을 마쳤다. 이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가 아닌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에 설치된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도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권역예방접종센터 내원 접종은 이달 9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계획 상, 감염병전담병원 등지에 백신을 배송해 자체 접종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 간이다.

권역예방접종센터 관련 접종 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의료진 및 종사자로서 4732명이다. 구체적인 지역별로는 광주 1040명, 전남 778명, 전북 1105명, 제주 1809명 등이다.

최윤희기자



3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에 설치된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 순천시 동천에 연어가 돌아온다...연어치어 5만마리 방류

방류생물 질병검사 통과 4~5cm  
지난 2017년 3월에 2만마리 방류  
3년 지난 작년 50여마리 돌아와  
매년 연어 방류 행사·방류량 늘려

순천시는 도심 중앙을 가로질러 순천만으로 향하는 동천의 하천생태계를 위해 3일 연어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동천하류 세월교 인근서 허석 시장과 시 공무원 등이 4~5cm 크기의 '방류생물 질병검사'를 통과한 연어를 흘려 보냈다.

이날 방류한 연어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동천서 30~50일간 머물면서 동천의 체취를 기억한 후, 남해바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태평양의 오호츠크해, 베링해, 알래스카만 등에서 성장하고, 3년 후 산란을 위해 고향인 동천으로 돌아와 전파한다. 연어는 동천의 수질생태계가 건강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3월 시범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2만 마리를 방류했다. 3년이 지난 작



3일 허석 순천시장과 시 공무원 등이 동천 하류 세월교 인근에서 연어 치어 2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사진=순천시청 제공)

년 10월 50여 마리의 연어가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결과에 힘을 얻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어방류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린연어 방류량도 매년 늘려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동천으로 연어가

돌아온 것은 동천의 하천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생태수도도 완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오늘 방류한 연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순천만과 동천의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한전공대 특별법 ‘18일 분수령’

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상정  
3월 중 법안 공포 정상개교 탄력

여당이 삼고초려를 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상정이 무산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오는 18일 '법안 상정'의 분수령을 맞게 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특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해당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여야 의원 간 찬반토론을 겸한 심의를 30분 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는 오는 11·16일 두 차례 더 한전공대 특별법 심의를 하고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상정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의 안건 상정은 여야가 협의 정신을 발휘해 법안이 소위원회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두 차례 심의는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여곡절 끝에 소위 문턱을 넘어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이 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국회 본회의의 표결→정부 전

달→3월 공포' 순으로 속도를 내게 된다.

하지만 3월에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의 시행령 제정도 차질을 빚게 돼 내년 3월 정상 개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4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와 관련,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

앞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계속 공회전을 거듭하자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범시민지원위'는 “야당이 지역 특혜 프레임으로 씌워 한전공대 설립 취지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정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로 인하여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